

폐허, 바다의 기억

-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있는가*

이혜령**

1. 들어가며
2. 김학순의 경악
3. 경계 없는 폐허, 바다의 기억
4.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있는가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짐으로써,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를 정부에 등록시켜 셀 수 있는 인구로 범주화한 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내에서 살아남은 일본군 '위안부'의 수를 셈하기 이전에 자신을 드러낸 김학순의 증언 투쟁에 내재한 상징과 정동을 살펴보았다. 김학순이 증언을 통해 드러낸 전쟁 기억 이미지로서의 폐허는 지명을 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이 글의 초고는 한국여성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주최 <2022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 전쟁, 식민주의와 여성 폭력> (2022.10.26.)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필자의 문제의식을 진전시킬 것을 독려해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소장 정유진 선생님, 학술기획 팀장 이현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학술회의에서의 박소현 선생님의 유익한 토론,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에 알게 된 김은실 선생님, 정희진 선생님의 질정, 심사자들의 예리한 논평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치지 못했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닌 특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무수한 죽음을 목격한 곳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그 참상을 돌아갈 수 없는 주검들이 부유하는 바다로 그려낸 도미야마 다에코의 〈바다의 기억〉이 제시하는 전쟁의 폐허 이미지를 주목하였다. 땅이 아닌 바다의 폐허 이미지는 굳이 셈할 필요조차 없다고 간주된 여성들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과 존재 방식, 초국가적인 폴리스를 창출한 운동의 양상에 각인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일본에서 기금 문제가 대두된 것에 대한 국내 운동의 대응 속에서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정부 등록의 법제화는 커밍아웃의 청자를 정부로 삼았으며, 그 자격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 과정과 그 결과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 기억, 서사에 있어 민족주의 프레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오늘날 '위안부' 생존자 수를 세는 관행과 세계 곳곳에 지속되고 있는 전쟁에 힘입어 확장되는 K-방위산업을 자랑하고 신냉전의 군사적 긴장 속에 확전을 외치는 것이 같은 민족주의의 깃발 아래서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 글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헤아릴 필요조차 없는 존재들을 대량 생산하는 자본주의 팽창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중지와 반대에 있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증언, 폐허, 바다의 기억(도미야마 다에코), 민족주의, 반전)

1. 들어가며

2022년 12월 26일에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의 부고 기사¹⁾가 났다. 나눔의 집에 이옥선 할머니가 두 분 계셔서 필자도 처음에는

헛갈렸다. 나는 돌아가신 이옥선(1928-2022)을 2015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통해 박남수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에서 본 적이 있다. 박 감독이 속리산 부근 집으로 찾아가 그를 만난 장면이나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와 스스로 발길을 돌린 이야기를 할 때의 딱딱함과 달리, 이어지는 과거의 그의 모습은 달랐다. 1993년 강제동원은 인정하되 사죄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그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도쿄에 가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증언을 했었던 것이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없었으며, 소복에 장구를 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²⁾ 부고를 받고 보니, 나는 그런 그를 기억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몽클했다. 고향 대구를 떠나 속리산 범주사 근처에서 살며 한 스님의 권유대로 관광객을 상대로 장구를 치며 살았다고 한다. 도쿄에서 말 그대로 가열찬 시위를 벌인 이옥선을 포함 15명의 피해자들은 정확히는 “현생존 강제군대위안부피해자 대책 협의회” 소속의 멤버들이라는 사실³⁾을 최근에서야 알았는데, 그 조직은 정대협과는 다른 조직이다. 이 조직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1)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변세... 향년 94세>, 『한겨레』 2022.12.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obituary/1073329.html?_ga=2.154952959.696135618.1673066513-356518334.1644204177, 최종접속일: 2023.1.7.)

2) 2017년 이 영화의 최종 편집본이 나왔으며, 2020년 서울국제영화제에 최종본으로 다시 상영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황미요조, <침묵의 번역, 혹은 번역할 수 없음의 재현-영화 침묵리뷰>,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소 웹진 결, 2022.11.28. (<http://www.kyeol.kr/ko/node/433>, 최종접속일: 2023.1.7.)

3) 몇몇 기사를 통해, 이 조직의 회장은 김복선이었으며 이용수, 문옥주 등이 회원임을 알 수 있었다. <정신대할머니 3명 시위도중 할복 시도 일 대사관 앞서>, 『동아일보』, 1994.1.26., 30면; <위안부 대책협 할머니들 출국>, 『한겨레』, 1994.5.21., 14면; <방일 정신대 협 할머니 일본 공무원에 구타당해>, 『조선일보』, 1994.6.4., 27면. 김복선(1930-2012)은 1993년 3월 일본 정부의 “군위안부 조사청취단”의 방문에 증언하겠다고 나선 첫 번째 사람이었다. <김복순 할머니를 아십니까>, 『강진일보』, 2016.3.10., 또한 김학순과 깊은 우의를 나누며 생존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리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국민 기금’에 얽힌 입장의 차이와 갈등 때문이었음을, 그들과 동행했던 박남수 감독도 이 때문에 입국금지를 당하는 등 큰 곤욕을 치른 것을 알 수 있었다.⁴⁾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신고한 이후 거의 30여 년간을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한 인권 운동가로 산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들이 생긴 것 같다.

그의 부고와 함께 알려진 사실은 비감하고도 낮은 것이었다. 『한겨레』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기사를 냈다. “90, 92, 92, 94, 94, 94, 94, 94, 95, 98.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한 10명의 나이이다. 지난 26일 이옥선(94)씨가 별세하는 등 올해에만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들 생전에 일본 정부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⁵⁾ 기자들은 일본과의 관계협력에 적극적인 현 정부가 들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일본 정부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제 손으로도 셴할 수 있는 열 명만이 남아서인지, 또 모두 90이 넘은 고령이어서인지 위의 기사는 아예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숫자로만 표현하였다. 그래도 소수이지만 활동가로 살아왔으며 영화에도 등장했고, 신문지상에도 등장했던, 드물게 부고에 유족의 존재까지 드러낸

4) 다음을 참조. 황미요조, <침묵의 번역, 혹은 번역할 수 없음의 재현-영화 침묵리뷰>,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소 웹진 결, 2022.11.28. (<http://www.kyeol.kr/ko/node/433>, 최종접속일: 2023.1.7.); 정희진, <1997년 7월 30일 경향신문, 9월 6일 한겨레, 7일 연합통신>, 『경향신문』, 2022.9.7.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070300005#c2b>, 최종접속일: 2023.2.9.)

5) 「‘평균94살’ 위안부피해 생존자, 그 절박함 외면하는 정부」, 『한겨레』, 2022.12.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3514.html?_ga=2.92488538.696135618.1673066513-356518334.1644204177, 최종접속일: 2023.1.7.)

이옥선의 죽음도 어김없이 생존자 수의 뺄셈의 수로 기능하였다. 그들은 누구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말할 밖에 없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국적의 피해자다.

나는 지난 2015년 이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합의 이후 생사를 달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부고 기사가 남은 생존자 숫자를 셈하는 것에 강조점이 두어져 있음을 말한 바 있다.⁶⁾ 그런데 이 관행은 내 생각보다 제법 오래된 것이었다.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5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부고 기사를 사회적 기억의 텍스트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 신문들이 '위안부' 부고기사 말미에 나머지 생존자 숫자를 표기했다는 사실이다. 신문은 운명의 시간을 재듯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죽음을 숫자로 기호화했다. 생존자 숫자라는 '사회적 기표(記標)'는 '위안부'라는 역사적 유산과 흔적이 곧 영원히 소멸한다는 유한성에 대한 '기의(記意)'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⁷⁾ 이러한 담담한 진술에 동의하지 않기로 어렵지만, 부고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관행이 된 생존자를 숫자로 셀 수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학순의 등장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는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를 셀 수 있기 이전에 등장한, 말하자면 첫 '한 명'⁸⁾의 생존자로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기 때문이다. 셈하기 이전에 등장한 그로 인한

6) 이해령, 「그녀와 소녀들-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오혜진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 민음사, 2018, 116-118쪽.

7) 이완수·정영희·배재영,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기억」, 『한국언론정보학보』 114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 199쪽.

8) 이 '한 명'은 김숨의 소설 『한 명』(2016)에서 따왔다. 이 작품은 마지막 한 명 남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죽음의 경각을 다룬다는 뉴스를 접한, 아직 커밍아웃하지 않은-정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그녀'가 병상에 누운 '한 명'을 만나러 가기까지의 이야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의식의 고양은 상당했던 것 같다. 스스로 놀람을 멈출 수 없었던 그의 증언에 모두 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정도로 말이다. 이 글은 그의 증언을 다시금 쫓아가면서 세계인을 놀라게 한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폐허'의 이미지를 상상해보고자 한다. 그런 후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이 물음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기억의 궁극적 지향으로서 반전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김학순의 경악

캐롤 글럭은 지난 세기말 2차세계대전의 재기억화가 과거의 전쟁을 현재의 정치와 문화의 관심사로 돌려놓았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본군 '위안부'는 '홀로코스트'와 '히로시마'처럼 “국경이나 문화적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법적·도덕적 귀결을 수반했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⁹⁾이 과정에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1924-1997)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로 커밍아웃했던 것은 결정적이었다. 김학순은 이날 첫 증언에서 “일장기만 보면 억울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라고 말했다.¹⁰⁾ 같은 해 8월 20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9) 캐롤 글럭, 양승모 역, 『기억의 작용-세계 속의 '위안부'』, 나리타 류이치 외 지음, 『감정 기억·전쟁』, 소명출판, 2014, 222쪽. 캐롤 글럭은 최근 다음 글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이동하는 비유(travelling trope)가 되었으며 제2차세계대전 후 법, 증언, 권리, 정치, 책임의 관념에 있어 진화한 '세계 기억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Carol Gluck,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in Mnemonic Solidarity, Entangled Memories in the Global South, J.-H. Lim, E. Rosenhaft (ed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1.

10) <중군 위안부 참상 알리겠다>, 『한겨레신문』, 1991.8.15., 14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 여복해서 내가 다 이름을 밝혔다니깐요. 본명을 몰라요. 내가 한국이름, 조선이름은 모르고 일본 이름 그때 거기서 부르던 이름은 다 알거든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만이라도 나와줬으면 좋겠어. 일장기가 갈 때 이렇게 꽃힌 것을 보면 가슴이 주저앉은 것처럼 딱 놀래 갖고 오매오매 저놈의 히노마루 아주 귀에 박이었어요. 덴노헤이카 히노마루 하두 해가지고 귓구멍에 박였어요. 저놈의 히노마루 저놈에게 내가 이렇게 짓밟혀가지고 내가 평생을 요 모양 요꼴이 되어버렸지.¹¹⁾

위의 진술은 간단치 않다. 일본군 '위안부'의 집합적 존재와 소외적 성격, 전생애에 걸친 위안소 및 전쟁 기억의 시간성과 그것을 매개하는 상징 등을 단번에 드러낸다. 김학순은 자신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목격자로 증언해주기를 바랐다. 그런 극적인 일은 금방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녀는 정말 함께 있던 이들의 조선 이름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일까?¹²⁾ 1991년 12월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

11) <MBC PD수첩 정신대를 증언한다>, 1991.8.20. 방영분 (<https://www.youtube.com/watch?v=lq7aVVqebgc>, 최종접속일: 2023.1.7.)

12) 남북 '위안부' 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사진을 남겨온 이토 다카시(伊藤孝司)는 북한의 정옥순(1920-1998)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정옥순은 위안소에서 살해당한 여성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꼽으며 “계월이, 단월이, 명숙이, 개춘이, 분숙이...”하며 한 사람씩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또한 1992년 12월 9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 보상에 관한 국제 공청회'에서 김학순이 북한의 김영실의 증언이 끝나자 단상으로 한걸음에 올라가 통곡하며 껴안으려고 팔을 벌린 장면을 찍은 이토 다카시의 사진이 유명하다. [출처] “만나다, 그리고 보듬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작성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blog.naver.com/whrck/221477090162>, 김학순은 “위안소에 우리 같이 있었잖아?”라고 물었다고 한다. 「92년 12월 '전후보상 국제공청

회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의 원고 35인에 포함된 세 명의 일본군 '위안부' 중 김학순만이 자신의 본명을 밝혔으며 다른 두 명은 본명을 감추었다.¹³⁾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절차를 밟고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김학순은 “일본에 온 어젯밤 자리에 누웠으나 감정이 복받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나는 운 좋게 도망쳐 살아 있지만 동료들은 그대로 내버려져 죽었습니다.”¹⁴⁾라고 말했다. 또 “나는 피붙이도 없으니까 이름이든 뭐든 말해도 괜찮아요.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돈을 얼마나 받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¹⁵⁾라고 했다. 동료들은 그대로 내버려져 죽었다는 것과 신원을 밝히고 공적인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김학순의 증언과 체험이 일깨워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일 것이다. 그의 어조는 일장기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격앙되다가 잦아드는 목소리의 체념으로 끝난다. 히노마루를 말하면서 가슴의 통증을 일으키고 환청이 들리듯 하는 순간 김학순에게는 어떤 기억이 떠올랐던 것일까? 그는 어디, 어느 시간에 있었던 것일까?

김학순의 일장기에 대한 언급은 1991년 12월 9일, 종군위안부 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가 주도하여 도쿄 YWCA에서 열린 '김학순 씨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에서도 있었다.¹⁶⁾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날 녹화했는지조차

회에서 극적으로 해후한 김학순 씨와 북한에서 온 김영실 씨(사진), 『한겨레』, 1994.6.17. 11면. 정옥순의 증언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이토 다카시, 글·사진, 안해룡이은 옮김, 『르포르타주 북한에 있는 성노예 피해자들』, 『기억하겠습니다-일본군 위안부가 된 남한과 북한의 여성들』, 알마, 2017, 282~283쪽.

13) <정신대 김학순 할머니 회견 소복차림으로 일제 만행 증언>, 『경향신문』, 1991.12.7. 9면

14) <정신대 김학순 할머니 회견 소복차림으로 일제 만행 증언>, 『경향신문』, 1991.12.7. 9면

15) <정신대 할머니의 눈물>, 『동아일보』, 1991.12.6. 5면

있고 있었다는 김부자의 소장 영상이 2021년 김학순 증언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언론에 부분적으로 공개되었다.¹⁷⁾ 거기에도 일장기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최근 이나영의 글을 통해 김학순 증언의 전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¹⁸⁾ 김학순의 말은 이러했다. “나는 군대, 싸우는 군인만 쳐다봐도 떨리는데, 그리고 일본 깃발만 봐도 지금까지도 치가 떨려요. 이번에 오면 서도 얼마나 내가 JAL이라는 뭐 비행기를 탔는데, 뭣 모르고 비행기를 타라고 해서 타고 오긴 하는데, 재판 때문에 오기는 해도, 비행기를 딱 타니까 날개 죽지 옆에 갔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내다보니까, 빨간 히노마루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내가 왜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나...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잠도 내가 못 잤어요.”라고 말했다. 전장에서 솔하게 본 일장기는 전쟁을 벌여 자신을 ‘위안소’로 내몬 일본의 상징이었으며, 히노마루는 그의 삶에 있어 일본이 시작한 전쟁 체험을 건드려 몸서리치게 만드는 정동적 기억의 매체이자 기억 이미지였다.

1997년 7월에 남긴 김학순의 마지막 육성 인터뷰¹⁹⁾는 그를 경악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1995년 정부의 지원으로 마련했다는 열 평짜 리 임대 아파트에서 그는 평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인터뷰 끝에 복용하고 있는 약 꾸러미를 펼쳐 보이기도 했다. 110살, 120살까지 살아서 아시

16) 양정자, 「김학순 증언과 일본 운동의 역사」,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 회의』(자료집),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외 주최, 2022. 33쪽.

17) <KBS 시사직격 '위안부' 공개 증언 30주년-김학순, 다시 우리 앞에 서다>, 2021.8.13. 방송/2021.8.18. 유튜브 재업로드. (<https://www.youtube.com/watch?v=1SjO4v7Ig8k>, 최종검색일: 2023.2.9.)

18) 이나영, 「김학순 공개증언과 일본의 시민운동: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만들어낸 파장」, 『젠더와 문화』 제15권 1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2.

19) <뉴스타파 목격자들 ..“나의 소원은...” 故김학순 할머니의 마지막 증언>, 2016.8.16 이 프로그램 안에 1997년 7월 촬영된 김학순의 인터뷰가 들어 있다. 인터뷰는 김리라가 진행, 촬영은 박정남이 한 것으로 나온다. (<https://www.youtube.com/watch?v=rgBj0dEJy50>, 최종검색일: 2023.2.9.)

아 여러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 피해를 준 ‘일왕’의 사죄를 자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지만, 그해 12월 16일 병상에서 영면에 들었다. 김학순은 이 인터뷰에서 생부가 독립운동가들을 쫓아다니며 밥을 해주었으며 그들을 데려다 밥을 먹이기도 했더라는 전언을 말하기도 하고²⁰⁾, 또 아시아 여러 나라에 피해를 준 전쟁을 시작한 일본의 ‘일왕’이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 인간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증언에 나서기 전 오랜 세월을 주저했던 것은 “남 부끄러운 생각”으로 표현한, 가부장적 성 규범에 의거한 사회적 낙인²¹⁾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에의 공포였다는 것을 이야기한 대목이었다.

우리 죽으면 우리 죽은 뒤, 나 죽은 뒤에는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싫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 사람
들이 사람 죽이는 거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기 때

20) 이토 다카시(伊藤孝司)와의 인터뷰에서 김학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는 독립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주로 갔지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만났고, 길림성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백일잔치를 치르기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김학순,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토 다카시, 앞의 책, 221쪽. 이토 다카시의 김학순에 대한 취재는 1991년 10월 21일, 1992년 6월 1일, 1992년 12월 9일 그리고 김학순의 장례식이 치러진 1997년 12월 18일까지 이어진다.

21) “젊은 때는 이렇게 나오지도 못했어 남 부끄러운 생각에 우선 부끄러운 생각부터 이제 늙으니까 좀 창피한 것도 이제는 괜찮아. 헤어 나왔으니까...젊어서는 남부끄러운 것 아니야...세상에 남과 같은 세상을 못살고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그 ‘위안부’ 노릇했다는 것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것이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오히려 알고 알면 상부에서라도 거시기 해줬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갔다 온 사람을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누가 상대를 안 하려고 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니까 밤낮 숨어서 울거나 했지 소리 안내고 눈물만 흘렸지 말할 데가 없었어 그렇게 했어 우리가. 우리가 살아나온 세상이...이제는 단순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복수 저놈들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듣는 거 잘못했다 소리 듣는 것 원이 그거야 이제 다른 건 없어.”

문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끌려가서도 봤지만도 사람 죽이는 걸 너무 많이 봤고 죽인다는 게 무서워서...죽인다는 게 무서워서 젊어서는 사실 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어.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분하고 원통해서 죽겠어. 세상에 말을 못하고 살다니. 내가 이런 말을 해놓고 내가 일본 사람들에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도 내가 죽기 전에 말을 한번 해야 쓰겠다 나 대신 말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지.²²⁾

김학순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고, 또 옮겨 적어 읽고 또 읽어보면, 자신을 드러내어 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가까워진 인생의 시간인 노년에 이르러서야 말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삶은 “세상에 말을 하지 못하고 살다니”라는 원통함을 끝내 풀어내지 못할 때까지 전장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은 청자들의 요구로 위안소의 방 한 칸에서 일어난 강간의 경험으로 초점화되곤 하지만, 그곳 역시 전장의 한복판이었다. 김학순에게 있어서 숨을 거둘 때까지 이어진 증언 투쟁은 자신의 목숨을 강탈할 수 있는 일본이 시작한 전쟁이 끝났는지를, 또 지금-여기는 전장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전쟁과 전장을 떠올리는 정동적 체험의 반복적 재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숭한 목숨이 스러져도 항의할 수 없었던 전쟁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말해야 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일본군 ‘위안부’였던 자의 증언은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돌아가 모든 이들을 경악시키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삭제되기 어려운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각인시켰다. 그것은 이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전쟁의 폐허를 보여주었다. 역사부정론이란 이 폐허의 기억 이미지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역사부정론자 자신의 놀람에 대한 삭제이자 부정이라고 할 수

22) <뉴스타파 목격자들 ..“나의 소원은...” 故김학순 할머니의 마지막 증언>, 2016.8.16

있다. 이 폐허를 부인하려는 역사부정론의 선택은 기껏해야 김학순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들이 멈춰선 시간 이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이 중일전쟁을 벌이기 전부터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은 이미 가난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캐럴 글러는 김은실과의 대담에서, 세계 곳곳에서 소녀상이 건립 될 때마다 요란스럽게 항의한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를 세계의 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조직적인 성노예제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일깨워 주는 기능을 했다는 낙관적인 주장을 들려주었다.²³⁾ 나의 말로 바꾸자면, 일본 정부나 보수 세력들이야말로 소녀상을 통해 자신들을 놀라게 한, 그 폐허의 기억 이미지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은 ‘위안부’가 환기시키는 폐허는 특정한 도시나 장소로 제한될 수 없다는 사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3. 경계 없는 폐허, 바다의 기억

그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또 날개는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들 앞에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씌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만 본다. 천사는 머물고 싶어 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이 폭풍은 그의 날개를 꼼짝달짝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기

23) 캐럴 글러, 김은실 대담, 〈민족주의를 넘어서: 현재 진행형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웹진 결, 2022.8.29. (<http://www.kyeol.kr/node/471>, 최종검색일 : 2023.2.9.)

때문에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 없지만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²⁴⁾

독일 작가 제발트(1944-2001)는 「공중전과 문학」(2001)에서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 나오는 위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전역에 이루어진 연합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고향 할버슈타트(Halberstadt)를 어린 시절에 목격했던 알렉산더 클루게(Alexander Kluge)의 기록을 '역사의 천사'와 겹쳐서 독해한다.²⁵⁾ 이경진에 따르면, '역사의 천사'는 제발트 자신의 문학적 지향이자 작가의 알레고리였다. 영국군의 독일 공습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것처럼, 전쟁은 억제될 수 없는 자기 동력과 자기 논리로 움직이는 자연사가 되어버렸다. 제발트는 전쟁의 참혹한 폐허와 죽음을 기록하고 애도하는 것을 회피하고 망각한 전후 독일 문학과 작가들을 비판했던 것이다.²⁶⁾ 2004년 광주에서 개최된 5.18 기념학술회의 발표문에서 리사 요네야마는 벤야민의 '역사의 천사'를 인용하면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의 폐허"와 "2001년 9.11 세계무역센터의 폐허"를 이야기하였다.²⁷⁾ 요네야마는 이 두 개의 폐허를 두고 이루어지는 기억의 정치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공히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와 과거에 대한 기억상실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히로시마를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하는 데 있어, 원폭을 야

24)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5』, 도서출판 길, 2012, 339쪽.

25) W.G 제발트, 「공중전과 문학」, 『공중전과 문학』, 이경진 역, 문학동네, 2019, 95쪽.

26) 이경진, 「옮긴이의 말 : '역사의 천사'의 문학을 위하여」, 위의 책, 203~210쪽.

27) 리사 요네야마, 진주 역, 「폐허로부터-기억의 정치를 조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4권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4, 207-109쪽.

기한 역사, 즉 일본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군사적 침략, 그리고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존재를 몰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계무역센터의 폐허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9.11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라덴을 지원해온 미국의 존재와 책임이 질문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²⁸⁾

제발트와 요네야마는 공히 2차세계대전의 재기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승리와 패배의 영웅서사 속에서 억압된 폐허에 대한 기억의 영역을 들춰냄으로써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윤리적 지평을 가능하게 할 역사철학적 사유의 형식을 성찰한다. 제발트에게 있어 벤야민의 역사철학은 근대 역사주의의 역사서술이 해체되어야 함을 의미했는데, 2차세계대전에서의 홀로코스트나 대일 공습의 경험은 사실을 연대기적이고 인과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의 역사서술로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²⁹⁾ 요네야마에 따르면, 벤야민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서 과거의 목록을 작성하고 역사가 어떤 대안적 가능성을 결여한 것처럼 균질화하는” 근대적 역사 쓰기를 비판하면서 “역사적 진보의 친숙한 과정에 수많은 대위법-혁명적 ‘현재-시간’-을 비취주고 역사적 필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만일~했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상상을 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역사서술과는 다르다.³⁰⁾

나는 이들의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김학순을 필두로 한 일본군 ‘위안부’들의 증언 투쟁으로 드러난 폐허는 어디인가, 또 언제인가를 묻고 싶다. 먼저 그 폐허를 놀란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는 ‘역사의 천사’는 누구인

28) 리사 요네야마, 진주 역, 「폐허로부터-기억의 정치를 조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4권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4, 109쪽.

29) 임석원, 「제발트에서 나타나는 기억이미지와 알레고리적 역사서술」, 『뫼히너와 현대문학』 통권37호, 2011 참조.

30) 리사 요네야마, 진주 역, 「폐허로부터-기억의 정치를 조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4권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4, 116쪽.

가? 그것은 김학순이자 일본군 '위안부'들이자, 우리들이다. 그리고 그 폐허는 전쟁의 폐허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히로시마나 할버슈타트처럼 특정한 국가의 영토인 지명으로 지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재건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기념되어야 한다고 쟁론할 수 있는 도시도, 지역도, 마을도 아니다. 김학순이 증언한 폐허는 그가 태어난 중국의 길림(吉林)이라 해야 할지, 유소년기를 보낸 평양이라 해야 할지 모를 고향도 아니고, 그녀를 위안소에서 탈출시켜 준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 둘을 낳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도, 배를 타고 전재민(戰災民)으로 돌아와 간신히 살게 되었으나 딸은 콜레라로, 남편은 사고로 잃게 되는 서울도, 또 혼자서 강원도 곳곳으로 장사를 하러 다니며 키운 아들에게 바다를 보여주려고 데리고 간, 결국 아들을 잃고 만 속초도 아니다.³¹⁾ 인생의 말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살아온 내력을 말할 수 없었던 한국의 어느 곳일까? 일본군 부대를 따라 이동, 설치된 위안소가 있었던 곳들이라 해야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잔해도 시체도 머물 곳 없고 찾을 곳 없는 폐허.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드러내는 폐허 이미지는 땅이 아니라, 바다의 이미지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상상된다.

도미야마 다에코(富山妙子, 1921-2021)의 그림 〈바다의 기억(海の記憶)〉 시리즈는 바로 그 폐허의 이미지를 제공한다.³²⁾ 〈바다의 기억〉 시리즈

31) 김학순, 〈되풀이하기조차 싫은 기억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화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근위안부들』, 한울, 1993, 33~44쪽.

32) 한국에서는 5.18 광주 화가의 더 잘 알려진 도미야마 다에코는 윤정옥, 이효재(1924-2020)와의 만남을 통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모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세대였다. 도미야마 다에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의 문제 '위안부'를 주제로 표현한 〈바다의 기억〉 시리즈를 1986년 완성한다. 미나베 유코(眞鍋祐子), 「월경하는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의 인생과 작품 세계: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페미니즘의 교차지점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94~101쪽 참조.

즈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다. <갈롱간 축제의 밤(ガルンガンの祭りの夜)>은 남태평양 해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위안부’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축제일에 바닷속으로 돌아와 여전히 군복을 벗지 못한 일본군과 해역의 사람들, ‘위안부’들과 함께 축제의 날, 전쟁폭력을 심판하는 것을 그려낸다.³³⁾ 거기에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죽어서도 살아있는 ‘위안부’들과 해골들, 일본군, 히노마루와 총과 사물들, 샤면과 원주민들, 물고기와 새와 나무들이 모두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레베카 코플랜드는 이 장면을 “새의 비행도, 행진하는 여인들도, 기도하는 자들의 증얼거림도 모두 붙들려 있다. … 축제가 함축한 열광적인 에너지는 얼어붙어 그 자리에 멈췄다. 소리 없는. 역사에 의해 침묵된.”이라고 해석했다.³⁴⁾ 역사의 천사는 자신이 바라본 폐허로부터 자기 자신을, 아니 하나인지 여럿인지 식별할 수 없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 채 어른거리는 자들을 본 것이지 않을까? 김학순은, 그리고 뒤를 이은 증언자들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땅으로부터 박탈된 채의, 침묵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몸만이 그 폐허를 드러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에, 우선 자신의 몸을 드러내어 말을 함으로써 그 폐허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다. 즉,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시작한 전쟁이 벌어졌던 모든 땅과 산, 바다, 섬들을 연결하고, 그 전쟁을 새롭게 기억하려는 사람들을 잇고 연루시키는 실타래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 내지 폴리스의 창설자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공동체는 영토도 경계도 없다는 것, 그것이 세

33) 최은주, 「전후일본 미술계의 ‘위안부’ 표상-전중세대의 ‘번민’에 주목하여-」, 『日本學研究』 46호, 단국대 일본학연구소, 2015, 424쪽.

34) Copeland, Rebecca, “Art Beyond Language : Japanese Woman Artists and the Feminist Imagination”, in *Imagination without Borders Feminist Artist Tomiyama Taeko and Social Responsibility*, Laura Hein, Rebecca Jennison (eds),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Japanese Studies, 2020

계 도처에 소녀상이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이다.

3.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있는가?

리사 요네야마는 “벤야민 묘사에서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³⁵⁾고 말한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를 다시 읽어 보자면,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 없지만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음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역사의 천사가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 채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다. 역사의 천사는 등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폐허를 목도하고 현재화한다.

김학순은 “나를 17살 그때로 돌려달라. 돈이 아무리 있으면 무엇이느냐고”³⁶⁾고 말했다. 이는 단지 과거가 회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판적 역사 성찰에 있어 “만일~했다면”의 반사실적 질문에서 행위 주체가 적실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³⁷⁾ 식민지 조선의 가부장주의와 가난의 중첩이나, '위안부' 동원 사기(詐欺)의 주된 레퍼토리인 학교, 공장, 돈벌이 등을 비성찰적으로 논급할 때, 피해자들이 애초에 셈할 필요조차 없었던 존재들로 간주되었음을 은폐하게 된다.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서 모집, 동원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전모를

35) 리사 요네야마, 진주 역, 「폐허로부터-기억의 정치를 조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4권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4, 14쪽.

36) <정신대 김학순 할머니 회견 소복차림으로 일제 만행 증언>, 『경향신문』, 1991.12.7., 9면

37) 리사 요네야마는 앞의 글에서 “만일~했다면”의 질문을 5.18 광주항쟁에 대한 학살을 다루고 있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만일~했다면”의 주어를 언제나 개인-작중 김영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석연치 않은데, 그 질문법에는 광주학살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명할 증거 따위는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국내의 역사부정론자들의 근본적인 주장이다. 이들은 발굴 공개된 증거는 부분적인 것일 뿐이기에 피해 주장은 과장되거나 날조된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그런 따위의 증거 부족, 증거 부재야말로 일본군 ‘위안부’는 셀 수 없는, 애초에 그 삶과 죽음이 셀 필요조차 없는 존재였음에 대한 역설적 응변 아닌가. 일본군 ‘위안부’의 총수는 40만을 상회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최소치로 잡자면 2만여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시된다.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주도한 수즈량(苏智良)과 첸리페이(陈丽菲)은 36만-41만으로 추정하고, 중국인 ‘위안부’가 20만 이상의 가장 많은 비중일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⁸⁾ 일찍이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일본군 ‘위안부’ 총수에 대한 여러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 논박하면서 자신의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³⁹⁾ 역사수정주의의 학술적 근거와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기 위한 프레임 마련해준 하타⁴⁰⁾의 추정치가 2만으로 가장 적은 것은 ‘위안부’의 성격을 성노예로 규명한 세계 ‘위안부’ 운동가들과 연구자들의 주장을 논박하는 성격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추정치의 현격한 차이는 박정애의 지적대로 일본군 ‘위안부’ 개념과 범주 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⁴¹⁾ 이 추정치의 근거들이 일본군의 숫자에서 추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추산될 때 얼마나 죽었는지에 대한 추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타가 2만 명으로 추산한 ‘위안부’의 9할 이상이 생환했다고

38) 수즈량·첸리페이, 『일본군 중국 침략 도감 제 19권 일본군 ‘위안부’와 성폭력』, 이선 이 옮김, 늘봄플러스, 2019, 23-24쪽.

39) 秦郁彦,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社, 1999, 405쪽 참조.

40) 최근 램지어 사태로 하타의 논의가 다시 재조명, 비판되고 있는데, 다음을 참조. 박정애, 「교차하는 권력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램지어와 역사수정주의 비판-」, 『여성과 역사』, 한국여성사학회, 2021, 17-20쪽.

41) 박정애,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서론」, 『사학연구』 120호, 2015, 172쪽.

추정할 때,⁴²⁾ 나머지 1할, 2천 명의 죽음은 견딜 만한 것인 듯하는 태도야말로 경악할 만하다.

일본군 '위안부'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음을 비밀의 문서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 셀 수 없음 자체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비해, 일본군으로 동원된 조선인 수의 추정은 아주 구체적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통계 가운데 최저치를 적용하면 육군 특별지원병 16,830 명, 학도지원병 3,893명, 육군징병 166,257명, 해군(지원병 포함) 22,299명 등 군인 동원 총수는 209,279명이라고 한다.⁴³⁾

어떻게 이들은 세세히 셈해질 수 있었는가? 다카시 후지타니는 “조선인의 전시동원으로 인해 이들은 직접적으로 생명, 건강, 생식, 그리고 행복의 가치가 있는 인구 구성원이 되었다. 즉 조선인들은 생명관리권력(bio-politics)과 통치성의 레짐 안으로 편입하게”⁴⁴⁾ 되었다고 주장한다. 강제퇴거와 대량학살을 낳은 무제한적인 전쟁이자, 잔인성과 비인격성을 일상적으로 무디게 만들었던 제2차세계대전의 총력전⁴⁵⁾은 그의 논의 속에서 아직 죽지 않은, 동원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 행복한 미래가 기약되어 있다고 약속된 자들의 숫자로 의미화되고 있다. 식민지민의 동원이 병사로든, 노동자로든 그들의 죽음까지는 셈할 수 없었다는 데서 이 주장

42) 秦郁彦,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社, 1999, 406쪽

43) 대일항쟁기간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편(2016),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124쪽. 다음에서 재인용. (<https://www.fomo.or.kr/kor/contents/40>, 최종검색일: 2023.2.9.)

44) 다카시 후지타니, 박선경 역, 「죽일 권리, 살릴 권리: 2차 대전 동안 미국인으로 살았던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살았던 조선인들」, 『아세아연구』 제51권 2호,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2008, 23쪽. 한편 다카시 후지타니의 위의 글이 포함된 책 Race For Empire는 한국어 번역본은 『총력전 제국의 인종주의』(이경훈 옮김, 푸른역사, 2018)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45) 에릭 홉스봄, 『극단의 시대 상』, 이용우 역, 까치, 1997, 61-89쪽.

도 문제가 없지 않으나, 일본군 '위안부'는 생명, 건강, 생식, 그리고 행복의 가치가 있는 인구 구성원으로서 일본인으로 편입된 조선인이지는 않았으며 이는 비단 일본군 '위안부'에 국한되지 않는 특성일 것이다. 애초부터 셀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죽음, 그리고 생존자들의 오랜 침묵 된 채의 삶을 생각해보자면, 셀 수 없는 자들을 셀 수 있는, 가시적이고 기지적인 존재로의 범주화는 김학순을 필두로 한 피해생존자의 커밍아웃으로 힘을 받아 전개된 운동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김학순은 위안소에서 함께 있던 이들이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생존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었다. 박소현은 김학순의 증언과 제소를 시작으로 국가책임에 대한 사죄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전개된 '위안부'운동이 생존 피해자를 가시화하고 지원하는 전략으로 '숫자의 정치'를 도입한 것은 불가피했음을 지적한다.⁴⁶⁾

정대협이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 신고전화의 개설, 시민모금운동을 경과하면서 법 제정을 촉구한 결과, 1993년 5월 한국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에 이르게 된다. 정대협 20년사 편찬위는 이 과정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던 보상이 아닌 기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간단히 서술했다.⁴⁷⁾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1991년 12월 6일 김학순 외에 2명의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이후에, 한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해야 했다. 1992년 1월 13일 가토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관여를 최초로 공식 인정하

46) 박소현, <숫자의 정치'의 무력화와 일본군 '위안부' 기억-표상의 주류화>(토론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편, 『2022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22

47) 정대협 운동 속에서 이 법의 제정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216-222쪽

고 조사를 명한다. 1992년 2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신대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는다. 일본군 ‘위안부’ 뿐만 아니라 근로정신대 피해자도 신고를 했다. 1992년 1월 13일 관방장관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의 관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1993년 8월 5일 강제동원 인정과 역사교육을 골자로 한 일본 관방장관 고노 담화가 발표된다.⁴⁸⁾

그러나 이 과정은 보상이 아닌 기금이 논의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미 1992년 1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서부터 보상과는 다른 “정신대 구제 기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⁴⁹⁾ 남북한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줄 기금이 구체적 액수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⁵⁰⁾ 1993년 3월 한국 대통령은 대일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정부는 “중군위안부 생활보호법” 추진하여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5월 제정된다. 정부와 국회의 추진 배경에는 “일본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 중군위안부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국가가 부담하고 임대주택 우선 임대권도 부여”였다.⁵¹⁾ 한국의 법 제정 전후 하여 한국 정부는 “과거사 규명 요구의 이면에는 ‘경제적 지원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일본 내의 불유쾌한 연상의 고리를 끊는 데 최대역점을 두어왔”으며, 대신 일본 스스로가 “자신들의 양심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을 기다려왔다는 것이다.⁵²⁾ 같은 해 8월, 강제성 인

48) <「일제 위안부」 문제 일지>, 『조선일보』, 1993.8.5., 2면. 이때의 피해자 신고에는 상당한 수의 근로정신대 신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49) <정신대 구제 기금 검토>, 『동아일보』, 1992.1.15., 2면; <발빠른 일본 서둘러 ‘불끄기’ 의도 ‘정신대 피해구제’ 숨은 뜻>, 『한겨레』, 1992.1.16., 3면

50) <일 「정신대 보상기금」 추진>, 『동아일보』, 1992.5.16., 5면

51)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요지>, 『동아일보』, 1993.5.19., 5면

52) <新정부 후속실천 관심>, 『조선일보』, 1993.8.5., 3면

정과 역사교육 실시를 골자로 한 고노 담화가 발표된다. 이로써 한일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매듭지어진 것으로 간주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보상 청구의 포기선언과 일본 정부의 환영은 1965년 한일 협정에 근거한 것이었다.⁵³⁾

이상의 과정은 일본의 태평양전쟁피해 또는 과거사의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관부재판에서의 부분적인 승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국한되게 된 것, 이후 건드리면 뿔 나는 상처가 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의 그 대상 범위의 제한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실제 정대협 운동에서도 피해자의 증언과 재판 투쟁 등을 함께 했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운동으로 나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다.⁵⁴⁾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나는 여기에 더해 1993년 <일제하 일본군 생활안정지원법>의 제도화, 물질화도 무시하지 못할 효과를 발휘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 및 등록은 공식적인 성격을 띤 만큼이나 여러 효과를 발휘했다. 이는 생존자들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데 다각적으로 기여하였다. 비단 의료와 주거, 생활비 지원 등 복지적인 차원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전과는 다른 사회적 삶의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다. 김순악(1928-2010)은 '위안부'등록증이랄 수 있는 대상자결정통지서를 액

53) 이상의 논의는 다음 논문에서 그 흐름을 참조, 발췌하고 당시의 신문기사로 내용을 보충하였다.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59~77쪽 참조.

54) 정대협 운동에 있어 '유족회'와의 거리 두기와 독자화는 한일협약에 대한 해석, 여성의 경험의 특수성, 여성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강조 등의 인식이 종합된 현실적 판단이었다고 한다.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83쪽.

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는데, 그는 정부가 자신의 힘들었던 삶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뻐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를 계기로 이웃과 시민운동가들, 자신을 방문해오는 공무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⁵⁵⁾ 김순악도 전쟁 반대와 여성인권 운동에 참여하였듯이, 정부 등록은 커밍아웃으로서의 증언, 증언으로서의 커밍아웃을 공신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장치였다는 점에서 운동을 안정화, 규범화하는 데 기여하였다.⁵⁶⁾ 증언의 집적인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은 신고와 등록의 절차를 밟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언급했듯이, 생존자를 셈하는 것이 긴급한 관계가 된 것은 죽음으로 생존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었다. 부고와 함께 언급되는 생존자의 수는 생존자의 증언에 의존해온 운동의 방식을 무겁게 보여주며 다른 한편 피해생존자들의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보상이라는 요구가 30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았음을 일깨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한국 정부의 법적 등록의 대상으로 범주화하고 거기에 안착해 있는 상황은 어떤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 우선 신고와 등

55) 다음을 참조.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보드랍게>(2022); 차혜영, <위안부' 등록증>, (김순악 구술 참여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일본군 '위안부' 증언집6), 2004, 235-236쪽 참조.

56)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6.5.)>인 <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피해자)의 신원과 함께 '일제하 당시 생활했던 상황' 기재란이 마련되어 있다. '강제동원 연도(년, 월)', '강제동원 장소', '귀환 연도(년, 월)', '귀환장소', '강제동원 상황', '현지 생활', '귀환 상황', '현재 생활'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로는 다음 세 가지가 제시된다. 1.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합니다) 2.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본인 진술서, 사진, 목격자 등 제3자 증언 등) 한편 피해부정과 혐오를 처벌하는 법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이를 청원하는 개정 운동이 진행 중이다.

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승인받는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형식이다. 국민기금에서부터 근래의 정의연 논란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제기된 중요한 의제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사회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입장의 표현을 억제하고 단일한 대응으로 강제하는 물적 토대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⁵⁷⁾ 또한 ‘위안부’ 운동의 대중화를 자극했던 한국의 문학, 영화텍스트의 서사 양식을 지배하는 형식이 되었다.⁵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커밍아웃이 꼭 정부에 등록하는 방식이지 않았더라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에 국적이라는 경계를 부여하여 그 고통과 의미의 경중을 달리하는 인식의 형성에 부지중에 기여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김학순의 증언이 있기 16년 전인 1975년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증언한 피해생존자 배봉기(1914-1991)의 삶은 이 지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임경화, 그리고 김현경의 최근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군이 통치하던 오키나와가 1972년 일본으로 반환된 후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자 1975년 배봉기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로 오키나와에 오게 되었음을 증언함으로써 ‘특별 재류’ 자격

57) 정희진, <1997년 7월 30일 경향신문, 9월 6일 한겨레, 7일 연합통신>, 『경향신문』, 2022.9.7.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070300005#c2b>, 최종접속일: 2023.2.9.)

야마시타 영애, 「제4장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의 전개와 과제 : ‘성적 피해’라는 시각에서」,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박은미 옮김, 한울 아카데미, 2012, 138-162쪽. 특히 국민기금을 둘러싼 갈등은 ‘위안부’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시각 차이로 인해 누적되어 왔던 갈등이 총체적이고도 극적인 양상으로 드러난 계기이기도 했는데, 야마시타 영애는 피해자와 국민, 지식인 활동가들 사이의 공감의 토대가 ‘민족’에 머물러 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의 책, 144-149쪽 참조.

58)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 텍스트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오혜진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2018, 민음사 참조.

을 얻게 된다. 임경화는 “이로써 배봉기는 30년 만에 국가에 등록되었다.”라고 썼다. 59) 배봉기의 삶은 보이지 않게 살았던, 즉 셈해질 필요가 없었던 존재로서의 일본군 '위안부'의 비인구적 성격을 삶 자체로 구현하고 있다. 최근 김현경은 “귀환하지 않은/못 한 일본군 '위안부'”인 배봉기의 삶과 죽음은 포스트식민 냉전 체제라는 힘이 주조했으며 미국, 일본, 남한 간의 위계질서의 착종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비가시화되고 서발턴의 침묵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날카롭게 논증하였다. 나아가 국가의 경계 너머의 '위안부'들에 대한 시야를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⁶⁰⁾

4. 나가며

한국의 여성가족부 사이트는 '위안부' 피해생존자를 시, 도별 지원 대상자의 수로 써넣은 간단한 도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 숫자가 언젠가 축소되어 마지막 한 명조차 유명을 달리해 사라질 날을 초조하게 또는 공연히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자아낸다. 단 한 명도 생존해 있지 않은 시와 도는 도표에 빈칸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 서울시장은 지난 해 시가 주관한 기림의 날 국제학술회의 개회사에서 “서울시에는 두 분이 살아 계신다”라고 말했다.⁶¹⁾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셈하기는 생존자가 언젠가는 행정적인 지원이 종료될 인구의 특별한 범주임을 환기시키는 명백

59) 임경화, 「마이너리티의 역사기록운동과 오키나와의 일본군 '위안부'」, 『대동문화연구』 제112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0, 494-495쪽.

60) 김현경, 「냉전과 일본군 '위안부' : 배봉기의 잊혀진 삶 그리고 주검을 둘러싼 경합」, 『한국여성학』 제37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21 참조.

61) 202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제포럼 <분쟁과 여성인권 : 이행기 정의와 책입의 정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주관, 2022.8.11.

하게 관료적 언어라는 사실을 예민하게 의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위안부’ 운동의 의미의 형해화로 가고 있는 징후,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에 국가의 경계를 긋는 것은 극단적으로는 “전쟁 기계로서의 내셔널리즘”⁶²⁾의 작동을 용인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음을 놓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여당은 신자유주의 질서의 공고화로 점증하는 불안을 세대와 젠더 갈등으로 전화시키고 반 페미니즘 정서를 정치 전략화하여 집권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일 관계 기초를 지난 정부와는 달리하고 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는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언급하는 말은 물론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유감의 표현도 없었다. 대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규정했다.⁶³⁾ 용산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이루어진 일본 고위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예의 봉헌과 참배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패전’을 기념하는 데 있어 그만둘 수 없는 오랜 “관습”으로 양해하는 시각을 드러냈다.⁶⁴⁾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부터 한국 정부가 공식 기념일로 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여당은 “개인이나 단체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아픔을 이용해 사적 이익이나 왜곡된 정치적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지하겠다”는 요

62) 다음을 참조. 라다 이베코비치(Rada Iveković), 백영경의 대담, 「젠더화된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우리 시대의 여성 연대」,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웹진 결, 2022. 8.30. (<http://www.kyeol.kr/ko/node/472>, 최종접속일: 2023.2.9.)

63) <전문 윤석열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 “한일관계 개선, 북 핵 포기 땀 획기적 지원”>, 『일요신문』, 2022.08.15.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4662, 최종접속일: 2023.2.9.)

64) <대통령실 “日 총리, 야스쿠니 직접 안가는 선에서 고민한 듯”>, <연합뉴스>, 2022.8.15.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5053000001?input=1195m>, 최종접속일: 2023.2.9.)

지의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지난 정부 때 불거진 정의연 논쟁을 겨냥하고 있음을 차치한다고 해도, “왜곡된 정치적 목적”에 ‘위안부’ 운동을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이자 정의로 고양시킨 국내외 페미니즘 운동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인권을 위한 것으로 세계에 알린 한국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의식 실천의 결실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의미를 페미니즘과 분리시키고 백래시와 보수 지지자들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과 혐오가 뒤엉키는 양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집권 정부들 간의 차이는 냉정하게 보면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되느냐, 아니냐 문제일 뿐이었다. 말 그대로 내셔널리즘을 넘어선, 근원적인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근년 간 세계의 분쟁과 전쟁을 배경으로 한국은 급부상한 무기 수출상이 되었으며 이 드라이브를 더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이미 박차를 가한 일이었다.⁶⁵⁾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잭팟’을 터뜨린 것으로 보도되었다.⁶⁶⁾ 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유럽에 진출한 한국산 무기는 “K-무기”, “K-방산”이라 불리면서 K-culture처럼 일상적 국민주의의 아이টে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 불렀던 미국의 우등생답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부상한 것으로 추겨지고 있다.⁶⁷⁾

65) <CNN, 윤 대통령 방산 4강론 조명, “K-방산, 이미 메이저리그 진입>, 『문화일보』, 2022. 8.17.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817MW200252954097>, 최종접속일: 2023.2.9.)

66) <‘K방산’ 폴란드서 7.6조원 잭팟>, 『서울신문』, 2022.8.2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9005006>, 최종접속일: 2023.2.9.)

신냉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은 동아시아로도 확산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동해상의 연합훈련으로 가시화되었다.⁶⁸⁾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확전”이라는 호전적 언어로 대응한 한국 대통령⁶⁹⁾은 앞으로도 전쟁 없이 평화라는 용어를 쓸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일본 총리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해 자위대에 반격 능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미일 정상 회담에 의해 확인, 지지되고 있으며 한국은 미일 안보동맹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⁷⁰⁾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려는 방안을 공식화함으로써⁷¹⁾ 파트너로서 동티를 내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군 성노예이던 이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정부 정책 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국내외의 관심을 의식하여 기리는 것과 대량살상의 무기를 팔고, 한미일의 깃발을 나란히 꽂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모순될 것이 없는 상황

67) <강하다 K! 방위산업…폴란드 수출의 의미는?>, <강하다-K>, KTV, 2022.11.4. (<http://v.daum.net/v/20221104115037583?f=o>, 최종접속일: 2023.2.9.)

68) <한·미·일 훈련 차이? 문 정부 때 △△은 하고 ▽▽는 안했다>, 『한겨레』, 2022.10.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62252.html>, 최종접속일: 2023.1.7.)

69) <연일 거세지는 윤 대통령 강경 발언>, 『경향신문』, 2022.12.19.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2291838001>, 최종접속일: 2023.1.7.)
<尹, 北무인기 위협에 엄중경고, “압도적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중앙일보』, 2022.12.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756>, 최종 접속일: 2023.1.7.)

70) <일본 반격 능력 ‘창’ 쥐어준 미, 중국 견제 강력한 동맹전환>, 『경향신문』, 2023.1.15.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01152110025#c2b>, 최종접속일: 2023.2.14.)

71) <정부, ‘강제동원 피해 간접보상’ 공식화…일본 호응은 구체적 언급 없어>, <KBS NEWS>, 2023.1.1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99003>, 최종접속일: 2023.2.14.)

이다.

전후 폐허가 된 도시와 국가의 재건이라는, 경제복원과 성장이라는 국민 서사에 안도하는 이들이 바로 경제주의 서사를 '위안부'는 돈 벌러 간 것이라는 식으로 역투사하고 있다. 거기에는 전쟁은 이기든 지든 진지하고 숭고한 것이라는 기만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식민주의에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근대성의 논리를 식민지의 가난한 여성에게 들씌우는 파렴치하고 악랄한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다시, 도미야마 다에코와 김학순에게로 돌아가보자.

91년 8월에 위안부였던 김학순의 이름이 나왔죠.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 마치 바닷속에 침몰한 배와 같은 환영이었던 것이 역사의 증언자로서 등장한 것은 커다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어서 차례로 이름을 내건 할머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들의 보고회에 저는 깊은 감개를 품고 기대와 흥분으로 갔습니다. ... (중략) ... 할머니가 격렬하게 때로는 통곡하고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모습에 저는 압도되었고, 이제부터는 체험자가 사실을 말하는 날이 온 것이다, 그 서곡에 지나지 않았던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⁷²⁾

김학순의 등장, 그리고 뒤이은 '할머니' 들이 증언자로서 등장한 것을 놀라움과 흥분의 감개를 갖고 목격한 도미야마 다에코의 회고이다. 도미야마 다에코는 스스로를 서곡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증언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던 자이기도 하다. 그 두 사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타계하였다. 그러나 아이히만의 법정을 목격한 한나 아렌트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으며, 망각이 가능하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72) 韓明淑·富山妙子, 〈軍慰安婦と50年の闘〉, 『世界』, 東京: 世界社, 1997, p.52 이 자료를 구해준 고영란 선생님과 번역을 해준 이영재 선생님께 감사를 표한다.

이 존재한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항상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⁷³⁾고 적었다. 김학순이 들려주고자 한 이야기, 또는 역사의 천사가 바라본 폐허의 기억 이미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바다의 기억,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지만 죽어서도 살아있는 일본군 ‘위안부’들과 해골들, 일본군, 총과 사물들, 샤면과 원주민들, 물고기와 새, 나무들. 이 셈할 수 없는 존재들이 만들어낸 폐허의 회상적 메시지는 그 모든 전쟁의 중지와 폭력적 팽창을 추구하는 남근 중심적 세계질서의 파국일 것이다.

73)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옥 옮김, 한길사, 2006, 김미정,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 『인문학연구』 54권,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2017, 276에서 재인용. 김미정은 5.18항쟁을 다룬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기억-정동의 연쇄로 분석하고 난 결론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이제 이 말은 단순한 수(數)에 대한 이야기나, 윤리적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선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언제나 모든 존재와 네트워킹되어 있고, 또한 원초적으로 기쁨(사랑, 존엄)을 향해 정동되기를 소망하는 존재다. 어떤 비참과 야만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이 쉽게 회의되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학순, <되풀이하기조차 싫은 기억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3.
- <뉴스타파 목격자들 ..“나의 소원은...” 故김학순 할머니의 마지막 증언>, 2016.8.16.
(<https://www.youtube.com/watch?v=rgBj0dEJy50>)
- <MBC PD수첩 정신대를 증언한다>, 1991.8.20. 방영분
(<https://www.youtube.com/watch?v=lq7aVVqebgc>)

2. 논문과 단행본

-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0.
- 김미정,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 『인문학연구』 54권,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2017, 249-278쪽.
-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현경, 「냉전과 일본군 '위안부': 배봉기의 잊혀진 삶 그리고 주검을 둘러싼 경합」, 『한국여성학』 제37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21, 203-206쪽.
- 다카시 후지타니, 박선정 옮김, 「죽일 권리, 살릴 권리: 2차 대전 동안 미국인으로 살았던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살았던 조선인들」, 『아세아연구』 제51권 2호,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2008, 13-47쪽.
- 미나베 유코, 「월경하는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의 인생과 작품 세계: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페미니즘의 교차지점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77-112쪽.
- 박정애,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시론」, 『사학연구』 제120호, 2015, 167-203쪽.
- 박정애, 「교차하는 권력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랩지어와 역사수정주의 비판-」,

- 『여성과 역사』, 한국여성사학회, 2021, 1-37쪽.
-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 최성만 역, 도서출판 길, 2012.
- 수즈랑·천리페이, 『일본군 중국 침략 도감 제 19권 일본군 ‘위안부’와 성폭력』, 이선이 옮김, 늘봄플러스, 2019.
- 양징자, 「김학순 증언과 일본 운동의 역사」,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자료집),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외 주최, 2021년 8월 13일.
- 리사 요네야마, 진주 옮김, 「폐허로부터-기억의 정치를 조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4권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4, 107-116쪽.
- 야마시타 영애,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박은미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2.
- 이경진, 「역사의 천사의 문학을 위하여」, W.G. 제발트, 『공중전과 문학』, 이경진 옮김, 문학동네, 2019.
- 이나영, 「김학순 공개증언과 일본의 시민운동: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만들어낸 파장」, 『젠더와 문화』 제15권 1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2, 109-145쪽.
-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오혜진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 민음사, 2018.
- 이토 다카시, 『기억하겠습니다-일본군 위안부가 된 남한과 북학의 여성들』, 안해룡·이은 옮김, 일마, 2021.
- 임경화, 「마이너리티의 역사기록운동과 오키나와의 일본군 ‘위안부」, 『대동문화연구』 제112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0, 491-520쪽.
- 캐롤 글러, 양승모 옮김, 「기억의 작용-세계 속의 ‘위안부」, 나리타 류이치 외, 『감정·기억·문화』, 소명출판, 2007.
- 최은주, 「전후일본 미술계의 ‘위안부’ 표상-전중세대의 ‘번민’에 주목하여-」, 『日本學研究』 46, 단국대 일본학연구소, 2015, 409-420쪽.
-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06.
- W.G. 제발트, 「공중전과 문학」, 『공중전과 문학』, 이경진 옮김, 문학동네, 2019.

韓明淑 富山妙子, 〈軍慰安婦と50年の闘〉, 『世界』, 東京 : 世界社, 1997.

Copeland, Rebecca, "Art Beyond Language : Japanese Woman Artists and the Feminist Imagination", in *Imagination without Borders Feminist Artist Tomiyama Taeko and Social Responsibility*, Laura Hein, Rebecca Jennison (eds),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Japanese Studies, 2020.

Gluck, Carol,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in *Mnemonic Solidarity, Entangled Memories in the Global South*, J.-H. Lim, E. Rosenhaft (ed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1.

3. 기타자료

라다 이베코비치, 백영경의 대담, 「젠더화된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우리 시대의 여성 연대」,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웹진 결 (<http://www.kyeol.kr/ko/node/472>)

이혜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는 셀 수 있는가〉,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웹진 결, 2022.7.28. (<https://kyeol.kr/ko/node/463>)

정희진, 〈1997년 7월 30일 경향신문, 9월 6일 한겨레, 7일 연합통신〉, 『경향신문』, 2022.9.7.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070300005#c2b>)

캐럴 글러, 김은실 대담, 〈민족주의를 넘어서: 현재 진행형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웹진 결, 2022.8.15. (<http://www.kyeol.kr/node/471>)

황미요조, 〈침묵의 번역, 혹은 번역할 수 없음의 재현-영화 침묵리뷰〉,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웹진 결, 2022.11.28. (<http://www.kyeol.kr/ko/node/433>)

그 밖의 기사는 본문 각주로 대체함.

Abstracts

Ruins, Memories of the Sea - Ca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Be Counted?

Lee, Hye-Ryoung(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categoriza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urvivors into a countable population by government registration in Korea. This is also to ask again the question of whether we can count the number of victims of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military.

To this end, first of all, the symbols and emotions inherent in the testimony struggle of Kim Hak-sun, who revealed herself as a survivor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ere examined. The ruins as an image of war memory revealed by Kim Hak-sun’s testimony are not identifiable places with geographical names,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y were places where corpses that could not return were floating by overlapping reading <Memories of the Sea> by Taeko Tomiyama. This image of ruins is imprinted on the mobilization and existenc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o are considered to have no need to count the living and the dead, and the aspect of the movement that created a transnational polis. In light of this, the legalization of government registra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which was made in response to the domestic movement against the rise of the civic fund issue in Japan, is limited to those with Korean nationality. This implicitly helped to strengthen the nationalist frame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memory, and narrative.

We must be wary of the fact that today’s practice of counting the number of survivors of ‘comfort women’ and boasting of the K-defense industry

and calling for redemption may be under the same flag of nationalism. This paper argues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is to stop and oppose the war caused by the expansion of capitalism that mass-produces countless beings.

(Keyword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Kim Hak-sun, testimony, nationalism, Memories of the Sea (by Tomiyama Taeko), anti-war)

■ 논문투고일 2023년 1월 6일
논문심사일 2023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6일